

Robert Vannoy) , 신명기, 강의 10A

© 2011, Robert Vannoy 박사 , Perry Phillips 박사, Ted Hildebrandt

**조약 언약 비유 및 신명기 낱자 -**

### **이의제기 및 답변**

세피레(Sefire) 아람어 조약과 그 차이점

아람 조약은 두 장소의 신을 인용하는 반면, 아시리아 조약은 아시리아 왕의 신들만 인용합니다. 히타이트 조약에 더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 아람 조약의 특정 특징이 있습니다. 아람 조약은 조약의 증인으로 소환된 신들을 선택할 때 종주국과 가신, 대왕과 가신의 신을 인용합니다. 히타이트 조약은 또한 두 파트너의 신을 증인으로 지명하는 반면, 아시리아 조약은 아시리아 신들만 지명합니다. 세피레(Sefire) 의 아람 조약의 공식화 스타일에 대한 기술적인 다른 점에 대해서는 내가 다루지 않겠지만, 아시리아 조약보다 히타이트 조약에 더 가까운 어법이 많이 있습니다. 공식화. 따라서 세피레 조약 의 특정 부분은 아시리아 조약보다 히타이트 조약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피레 조약 에 관한 결론 . 이 조약은 초기 히타이트 조약과 확실하고 밀접한 유사성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중요한 차이점, 특히

역사적 서문의 부족, 기본 의무 및 규정의 일방적인 성격을 보여줍니다 . 이제 조항의 일방적인 성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세 피레 조약에는 히타이트 조약에 비해 수석 파트너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이 더 많습니다.

3. 신명기 날짜에 대한 조약 언약 유추의 의미 3. 여기에 “신명기 날짜에 대한 조약 언약 유추의 의미” 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현재의 증거는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이 7세기 후반 에사르하돈의 아시리아 조약이나 클라인이 고전이라고 부르는 아람어 세피레 조약에서 복제되지 않은 독특한 초기 형태의 조약 문서를 대표 한다는 것을 나타 냅니다 . 형태. 그리고 그 형태의 차이에 다른 정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르제라인 에 대한 가신의 감사와 존경은 히타이트 조약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는 아시리아와 세피레 조약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클라인은 종주권 조약의 기록적인 형태의 진화에 대해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말합니다. 차이점이 과장되어서는 안 되며 클라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실제로 구약 시대 전체에 걸쳐 우리가 만나는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종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평행 요소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리킬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식별 가능한 진화를 정의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 그러면 신명기는 그 구조와 정신에 있어서 8 세기 세 피레 조약이나 7 세기 아시리아 조약보다 초기 히타이트 조약과 더 밀접하게 일치합니다 .”

그것이 그의 논문입니다.

따라서 대왕조약 (*The Treaty of the Great King*)의 43페이지에 있는 Kline의 결론은 상당한 장점을 갖고 있으며 지금까지 받아온 것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이전 조약과 후기 조약 사이의 본질적인 연속성과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기원전 두 번째 천년기의 히타이트 조약을 고전적인 형태로 구별하고 의심할 바 없이 신명기를 구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다큐멘터리 진화의 고전적 단계에 속한다.

여기에서 대왕의 신명기 조약이 모세에서 유래했다는 일견 입증된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 이것이 Kline 주장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가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클라인의 결론을 거부하다: 7 세기 역사 프롤로그(?)

이제 시간이 빨리 촉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결론과 그 이유를 거부하는 일부 동시대의 비평 학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전에 JA Thompson에 대해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틴데일 주석 시리즈* 의 51페이지와 52페이지에 있는 그의 신명기 주석 서문

부분에서 이 내용을 이미 읽었을 것입니다. 그는 클라인 주장의 강점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습니다. 그가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 시대보다 오래 후에 기록한 누군가에 의해 신명기가 고대 조약의 형태로 구조되었을 가능성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 나중에 누군가가 이 자료를 이전 형식으로 작성했습니다. 또한 그는 7세기 조약의 역사적 프롤로그에 대한 AF Campbell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역사적 프롤로그가 기원전 2천년 조약의 고유한 특징이라는 견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 제가 불과 몇 분 전에 지적한 것처럼, 역사적 프롤로그는 히타이트 조약에 있었지만, 7 세기 나 8 세기 조약 의 어느 부분에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 Thompson은 AF Campbell의 기사 “7세기 조약의 역사적 프롤로그”를 인용합니다. 그런 다음 Thompson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에 역사적 서문이 있다는 사실이 반드시 두 번째 천년기의 연대를 논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만약 당신이 역사적 프롤로그를 포함하는 조약을 여기에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역사적 프롤로그가 있다는 사실이 반드시 모세 연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Vannoy의 답변

이제 이에 대한 응답으로, 이 사람 캠벨이 7세기 문서에서

인용한 역사적 프롤로그는 명확한 예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자세히 설명하는 기사를 참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친구의 댓글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EF Campbell은 AF Campbell(두 개의 서로 다른 정기 간행물의 두 가지 다른 기사)과 비교하여 EF Campbell은 7세기 조약에 역사적 프롤로그가 있다는 “ 읽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나는 이것이 주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모세 시대 이후에 조약의 형태로 신명기를 주조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 이론적 가능성으로서 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히타이트 조약 양식을 사용하고 자료를 가져와서 가지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인의 입장은 이러한 방식으로 무효화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그의 모델에는 여전히 이를 지지하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클라인은 자신의 최신 저서 인 성서 권위의 구조( *The Structure of Biblical Authority*) 10페이지에서 이렇게 논평합니다. 모자이크 시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조약의 중심 관심사인 여호수아의 왕조 계승은 이 책의 7세기 기원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어색한 점이 그들에게는 상당히 설명 가능해졌습니다. ” 즉, 신명기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받아들여 이 모든 것이 모세 시대로 나아가고 특히

여호수아와 모세의 왕조 계승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면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됩니다. 7세기 기원.

시간이 다 됐어요. 발표가 시작되기 전에 예배의 중앙 집중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상보다 시간이 훨씬 더 걸렸습니다. 이제 수업 시간이 두 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나는 그것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클라인의 모델을 거부하는 일부 학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다음 시간에 시작:

b. 이 조약 형식의 발전이 신명기의 모자이크적 기원을 가리킨다는 결론을 거부하는 일부 현대 비평 학자들의 반응.

신명기는 조약 형식의 고전적인 단계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a" 아래에서 "아시리아 및 세피레 조약과 히타이트 조약과 의 비교"를 언급했습니다 . 작은 "b"는 "이 조약 형식의 진화가 신명기의 모자이크 기원을 가리킨다는 결론을 거부하는 일부 현대 비평 학자들의 답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세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배의 중앙 집중화라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싶지만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1967년 *Catholic Biblical Quarterly* 에 JC Plastares 라는 사람이 KA Kitchen의 *고대 동양과 구약을 검토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친숙한 책임입니다. *고대 동양과 구약성서*의 키친은  
신명기의 기원을 모세 시대의

조약 구조에 기초하여 주장하는 클라인과 매우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1. Plasteras의 주장 Contra K. Kitchen

Plasteras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Kitchen]은 DJ McCarthy에 반대하고 구약의 언약 전통과 유사한 조약 형식이 당시에만 유효했다는 GE Mendenhall의 초기 입장을 지지합니다. 2천년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키친은 계속해서 언약 이야기가 6세기에만 여섯 가지 문학적 형식을 취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립니다. 왜냐하면 작가들은 오래전부터 쓸모없는 언약 형식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키친은 히타이트 언약 형식이 어느 날짜에 고대 근동에서 현재 사용되지 않게 되더라도 이스라엘은 항상 자신의 숭배에서 동일한 기본 언약 형식을 유지했을 것이라는 매우 본질적인 사실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통의 모든 계층, J, E, D 또는 이러한 이전 출처의 편집 조합은 모두 동일한 기본 언약 구조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가 실제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성경 자료에서 발견하는 형식은 두 번째 천년기의 히타이트 형식을 사용한 조약의 진화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키친의 주장은 이스라엘이 이 형식을 컬트에서 어떤 방식으로 보존하고 훨씬 나중에 채택함으로써 그 형식을 훨씬 나중에 선택할 수 없었다고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명기가 두 번째 천년기에 작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의가 보존될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명기는 나중에 작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나는 그것을 이론적 가능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입장이 열어 놓은 것은 언약 형식이 이스라엘에서 언제 채택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컬트의 이러한 형태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언제 처음으로 채택되었습니까? 또한, 전체 언약 관계의 역사적 배경, 기회, 기초를 경시하는 형식의 단순한 제의적 파생에 대해 이전에 우리가 제기한 반대도 확실히 이 점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제의적 기원 가설은 클라인의 주장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설령 그 형태가 제의적 기원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나는 당신이 여전히 클라인의 입장의 힘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Plasteras 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조차도 빠른 날짜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형식의 인정된 고대성을 고려하여 늦은 날짜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뿐입니다. 그는 형식의 오래됨을 인정하면서 이 늦은 날짜를 고수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늦은 날짜로 강요하지는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늦은 날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논쟁에는 결론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세 연대를 주장할 때에도 신명기가 그 형식에 기초하여 논쟁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신명기가 모세라는 것을 어떤 종류의 최종 의미에서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많이 나가는 케이스를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입장에 대한 대표적인 반대이자 그가 이를 따르는 이유입니다. 나는 이 형식을 찾는 끈기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한 모든 단계와 모든 종류의 다양한 적용에서 조약 형식의 발견이 그러한 결론을 향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성전 봉헌식 때의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대략 이런 형식을 따릅니다. 이제 저는 솔로몬이 의식적으로 조약이나 심지어 시내산 언약 문서나 그와 유사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믿음의 성격과 다음과 같은 순서로 볼 때, “나(야훼)가 너희(이스라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였으니 너희에게는 이런 의무가 있고 그에 따른 축복과 저주가 있느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방식에 깊이 내재되어 있어 여러 면에서 반영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그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전체 형식이 늦었다고 말한다면, 물론 솔로몬의 기도를 받아들여 솔로몬이 실제로 그런 형식으로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후기 신명기 편집자가 솔로몬이 말했어야 했던 것을 신화적으로 구성한 것을 늦게 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솔로몬의 기도가 이야기에 등장하는 현재의 맥락에서 벗어나도록 비틀어 놓은 것입니다.

## 2. 프랑케나의 주장과 언약의 저주

문제를 제기한 또 다른 사람은 R. Frankena 입니다 . 이것은 당신의 참고문헌에 있습니다. “Esarhaddon의 Vassal Treaties and the Dating of Deuteronomy” 가 그의 기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사르하돈의 가신 조약은 7세기 후반 아시리아 조약입니다. 제가 방금 예비 책장에서 떼어낸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Alt Testamentum Studium* , 14권. 매년 게재되는 기사 모음입니다. 많은 기사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14권에는 유용한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Frankena 의 이 기사는 1965년 14권, 122~15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는 조약의 저주 공식 사이의 특정 일치 지점을 기반으로 신명기의 7세기 날짜에 대한 Esarhaddon 의 가신 조약에 대한 그의 기사에서 주장합니다. 에사르하돈과 신명기에서. 그는 에사르하돈 조약에 나오는 특정 저주 표현이 신명기 28장의 일부

저주와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합니다.

그의 결론은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앗수르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훼와 맺은 새 언약을 앗수르 왕과 맺은 이전 조약을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유혹적입니다. 이 언약의 본문이 앗시리아 조약에 대한 지식을 배반해야 한다는 것은 나에게서는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더욱이 신명기의 연대는 요시야 시대에 다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확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 앗수르 세력은 이스라엘이 독립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지배했고,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는 야훼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는 조약 문서이지 더 이상 앗수르에 대한 충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명기의 저자는 Frankena가 자신의 논문을 전개하면서 그에게 친숙했던 아시리아 조약에서 이러한 저주의 대부분을 거의 복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는 아시리아의 에사르하돈 조약에 뒤이어, 또 그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연대가 모세의 기원이 아닌 요시야 시대의 연대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히타이트 조약과 아시리아 조약 사이의 구조에 대해 이야기한 차이점의 의미를 그가 결코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역사적 프롤로그의 부족에 대해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주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 가지 논평을 했습니다. 136페이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앗시리아 조약에서 축복이 생략된 것은 그 조약이 충실한 가신에게 자동으로 축복을 주었다는 사실 때문일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앗수르 조약이 아니라 히타이트 조약에 따라 축복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아시리아 조약에는 왜 축복이 없나요? 글썄요, 아마도 조약이 충실한 가신에게 자동으로 축복을 줄 것이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신명기 문서가 본질적으로 앗시리아 문서에서 차용된 경우 *전체 구조와 형식*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습니다 .

Frankena

에 대한 클라인의 반응 이제 클라인은 자신의 책 *The Structure of Biblical Authority*를 집필할 당시 Frankena 의 이 기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 Kline의 저서 *The Structure of Biblical Authority* 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후기 [아시리아] 조약의 저주 부분과 신명기의 저주 그룹이 유사하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것은 이 특정 자료의 최신 시점에 대한 적절한 증거가 아닙니다. ” 왜? 그는 “저주 공식의 전통은 기원전 2천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 말합니다. 즉, 저주를 공식화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있고, 그런 고정관념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은 아주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 더욱이,

문제의 비평가들은 신명기가 추가와 수정의 과정을 통해 일정 기간에 걸쳐 발전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만약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면 그들은 7세기에 명백히 저주 공식의 존재에 호소할 입장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책 전체의 조약 구조가 늦게 유래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두 주장이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확인하려면 이러한 공식을 직접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사점이 있습니다. 표현이 다르고 수정되었지만 비슷한 종류의 저주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저주의 다소 진부한 공통 성격에 의해 훨씬 더 쉽게 설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신명기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신명기에 의존하기보다는 히타이트 조약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앗시리아 조약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Frankena는 앗시리아 조약과 비교하여 신명기 전체 구조와 히타이트 조약 구조의 일치에 대한 설명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Kitchen in *Ancient Orient and Old Testament*는 각주 100페이지에서 Frankena의 기사에 대해 논평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의 저주와 신아시리아 조약 사이의 유용한 비교는 R. Frankena와 Moshe Weinfeld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사성이 자동적으로 후기 아시리아 조약에 대한 히브리인의 의존을 의미한다고 가정하는 데 있어

일부 순진함을 드러냅니다. Weinfeld가 인용한 오래된 바빌로니아 데이터는 이미 모세 이전에도 서쪽 땅에 알려졌을 수 있는 적어도 2천년 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전통에 대한 다른 대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조약 자료는 Frankena 와 Weinfeld 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둘 다 이를 사용하여 늦은 날짜를 주장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 여기 von Rad가 있습니다 . 이전에 그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으므로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구조를 보고 이 구조가 히타이트 조약 구조와 유사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분명 관계가 있을 텐데, 그는 이런 종류의 제의적 주장을 고수하며 뒤늦은 날짜를 주장한다. 그는 아시리아 조약에 의존하지 않지만,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이 책의 전체 전개는 이 책을 구성하는 자료의 모든 층이 긴 전개 과정을 통해 송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왔는지,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지만, 그것은 제의적 기원형 관점이다.

3. 니콜슨 제의/의례적 연결 신명기에 관한 또 다른 최근 책은 DW Nicholson이 쓴 *Deuteronomy and Tradition* 입니다 . von Rad와 매우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신명기의 형식은 제의에서

파생되었으며, 언약 갱신 축제의 전례 패턴을 따른다 ” 고 결론짓는다. 그러나 그의 견해로는 레위인들이 신명기와 보존 자료에 나오는 설교에 대해 실제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집단을 이 책에 강조된 좋은 전통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책임 있는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그는 이 선지자 집단이 북왕국이 멸망한 후, 즉 기원전 722년과 사마리아가 멸망한 후 남쪽으로 도망했다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결국 므낫세 시대에 개혁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율법책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요시아 통치 중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선지자 집단은 기원전 722년에 남쪽으로 온 후 이 자료를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개혁을 위한 이 프로그램을 작성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신명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에 보관되어 기원전 621년 요시아 통치 기간에 결국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기본적으로 오래된 벨하우젠 입장이지만, 모두 621년 당시에 작성된 후기 자료라고 말하는 대신 한 세기가 지났습니다. 그 뒤에는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적 운동이 그 배후에 있고 그것을 발전시켰습니다. 원래의 형태는 컬트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어디서 유래했는지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4.

히스기야 또는 요시아 시대의

모세 웨인펠드 문학적 비종교적 기원 성 Moshe Weinfeld 중 하나는 다소 중요한 이름입니다 . 그는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신명기와 신명기 학교를 썼습니다.* 최근 몇 년 만에 나온 것입니다. 그는 언약의 형식이 제의적으로 파생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즉, 그는 von Rad, Nicholson 또는 누구든지 반대했습니다. 그는 신명기의 구조가 주기적인 제의 의식을 모방하기보다는 언약 기록의 문학적 전통을 따른다고 말한다. 즉, 신명기의 구조 뒤에는 일종의 제의 의식이 아닌 문학적 전통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책을 폰 라드 (von Rad)처럼 레위계의 책으로 돌리거나 니콜슨(Nicholson)처럼 예언적인 책으로 돌리는 대신, 히스기야와 요시아 시대의 궁정 서기관들의 책으로 돌린다. 그는 “ 신명기 뒤에 , 신명기 형식 뒤에 문학적 패턴이 있다면, 조약 작성에 익숙한 문단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것” 이라고 말합니다. 즉, 신명기는 궁정 서기관들이 쓴 것입니다.

이제 Weinfeld는 히타이트 조약이 독특하고 따라서 신명기의 언약 형식이 기원전 제 2 천년기 의 고전 형식과 일치한다는 Mendenhall , Kline, Bright 및 Albright의 견해를 거부합니다. 그는 그러한 견해를 거부합니다. 그는 조약 형식은 기본적으로 전체에 걸쳐 단



하나의 형식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아시리아 조약에 역사적 프롤로그가 없다는 점을 중요하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역사적 프롤로그가 없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할 수도 있지만 이미 논의한 것처럼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약간 다르지만 Frankena 의 의견 에 실제로 동의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그는 신명기가 초기 히타이트 조약보다는 현대 아시리아 조약을 반영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는 신명기가 예루살렘 서기관들의 산물인 문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기록적인 조약 형식의 진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거부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서기관들은 아시리아 조약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뒤에 있는 것은 아시리아 조약입니다. 이것이 그의 기본 논제입니다.

Weinfeld 에 대한 클라인의 반응

Kline은 자신의 저서 *The Structure of Biblical Authority*의 14 페이지에서 Weinfeld 에 대해 논평했습니다 . 그리고 그는 “바인펠트 신명기의 연설 성격은 문학적 장치로 설명합니다.” 라고 말하고 인용합니다. 신명기에는 연설 성격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 Weinfeld는 그것을 문학적 장치라고 설명합니다.

저자의 이념적 견해를 표현하기 위해 프로그래밍 방식의 연설을 유명인의 입에 담았습니다.” 이제 다시 벨하우젠이 됩니다. 우리는 모세의 입에, 여호수아의 입에, 사무엘의 입에 넣은 프로그래밍 방식의 연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초기의 것으로 표현되는 후기의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경건한 사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 Kline은 이렇게 말합니다. “von Rad는 진실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도 모세의 고별 연설 형태로 신명기를 캐스팅한 것을 허구로 간주했지만, 적어도 이 연설을 신명기의 언약적 요소와 공식적으로 통합했습니다. 그는 장교가 작별 인사를 하는 연설을 식별합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작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Von Rad는 이를 옹호하며, 가신 지도자들이 자신의 직위를 후임자에게 이전할 때 언약을 갱신하는 입증된 관행을 참조하여 이 연설과 다른 연설에 언약 형식이 존재함을 설명합니다.

불행하게도 폰 라트는 그 연설에서 권고적인 신명기 조약에 대한 진정한 설명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화자는 레위파의 설교나 후기 문학계의 궁중 서기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신명기가 이스라엘에 대한 모세의 작별이기도 한 언약 갱신의 기록 보관소라는 역사적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고대 조약에 이미 어느 정도 존재하는 파라네시스 즉 권고 의 요소는 그 감동적인 사건에서 모세에 의해

자연스럽게 최대한 활용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Weinfeld 에 대한 Kline의 반응입니다 . 모세가 떠날 때 언약 갱신을 계기로 사람들에게 연설하는 상황은 예루살렘에 앉아 있던 궁정 서기관들보다 신명기를 귀속시키는 훨씬 더 나은 “인생의 상황” 입니다. 요시야가 아시리아 조약을 복사할 당시.

신명기 본문의 고정성 *성경적 권위의 구조* 에서 클라인은 조약/언약 유추에 대한 이러한 생각과 조약 문서의 개념을 취하고 본문이 훼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내려놓고 나면 세팅이 되더군요. 그것은 추가되거나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없었으며 그는 그 개념을 성경의 정경 개념에 적용했습니다. 성경은 일단 기록되고 주어지면 이 모든 재형성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권위의 구조가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결론:

논쟁은 여러 가지를 촉발시킵니다. 역사적 프롤로그 :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의 언약과 히타이트 조약이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Weinfeld는 이것이 실제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 형태는 여전히 하나의 형태이다. 글썄, 나는 그가 형태에 있는 이 요소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형태에 있는 이 요소의 *기능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취소하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논쟁의 한 지점입니다. 히타이트에서 아시리아까지 하나의 연속된 형태가 있습니까, 아니면 발전이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형태가 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성서의 내용이 모세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그리고 왜 그 형태가 이스라엘 역사의 일부가 되었습니까? 비록 신명기가 레위인이나 선지자에 의해 형식이 보존된 어느 늦은 시점에 오더라도 그것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형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시내산 언약의 체결 외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상황을 가정할 수 있습니까? 클라인의 주장은 결정적인 증명까지는 아니지만, 관련된 모든 요소를 다루는 가장 만족스러운 모델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배의 중앙집권화 문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윤곽선에 이 로마 숫자 III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함께 다루겠습니다.

레이첼 토마스(Rachel Thomas)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대략적인 편집: Ted Hildebrandt

최종 편집: Dr. Perry Phillips  
페리 필립스 박사가 다시 해설함